

‘찐’ 광야

신명기 8장 2-4절

2.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사십 년 동안에 네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3. 너를 낮추시며 너를 주리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네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4. 이 사십 년 동안에 네 의복이 해어지지 아니하였고 네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많이 듣는 단어 중에 하나가 ‘광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방황했던 40년의 광야 때문인지, 우리의 삶에서 어려운 일을 만나면 흔히 ‘내 인생의 광야’라는 표현들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또한 이런 ‘광야’라는 말 속에는, 조금만 견디면 광야를 벗어날 수 있다는 기대와 바람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죠.

40년 광야의 삶은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고립’이 시간, 역사가운데 ‘멈추어진 시간’이 아니었을까요?

진짜 광야에서 우리의 노력이 보잘것없고, 멈추어진 것 같은 시간속에서 우리는 진지하게 하나님을 대면하는 ‘안식’과 같은 시간을 가지게 되는 것은 아닐까요?

아브라함 조슈아 헤셀의 [안식]이라는 책에 보면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p58-59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렇게 말했다. “우리는 휴식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우리는 쉬지 않고 일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나 휴식은 목적이 아니다.” 그에게 휴식은 “활동을 위해서” 존재하고, 새롭게 쓸 힘을 얻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다. 그러나 성서적으로 사고하는 사람에게 노동은 목적을 향해 가는 수단일 뿐이다. 수고를 접고 쉬는 날인 안식일은 잃어버린 기력을 회복하기 위해 존재하는 날이 아니며, 앞으로 해야 할 일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상태가 되기 위해 존재하는 날도 아니다. 안식일은 생명을 위해 있는 날이다. 인간은 짐을 나르는 짐승이 아니며, 안식일은 그가 하는 일의 능률을 높이기 위해 있는 날이 아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 가운데 가장 마지막 작품이자 하나님이 의도하신 것 가운데 가장 첫 번째 작품인 안식일이야말로 ‘천지창조의 목적’이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보낸 세월이 400년이나 되었고, 이들이 모세의 지도아래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으로 결심하게 됩니다. 출애굽 당시 애굽에 남은 히브리인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요즘 같은 세상에도 해외에 이민을 가면 1세대만 지나도 그 나라에 동화되고 언어도 잊고 사는데, 적어도 10세대가 넘는 세월이 흘렀으니 어떠했을까요?

히브리인들에게 애굽은 더 이상 ‘이방 땅’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요셉을 모르는 왕이 나타나 히브리인들을 학대했지만, 그들이 꿈꾸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과 비교하면 애굽은 훨씬 더 풍족한 곳이었습니니다.

출애굽의 여정을 따라가면서, 또한 가나안 땅에 정착하는 과정을 보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가나안’은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 충분히 준비된 땅이 아니었습니다.

그곳에 새롭게 정착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위험들을 많이 감수하고, 다시 밀바닥부터 시작해야 하는 고난의 여정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 여정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이유는 아니었을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잘 먹고 잘살기 위해 애굽에서부터 인도하여 내신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과의 첫 번째 약속’을 이루기 위함이 아니었을까요?

하나님이 택하신 이스라엘이 한 민족을 이루고,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 나라를 세우는 계획!

그러나 애굽 땅에서 히브리인들이 잘 먹고 잘 살아가고 있다면 그 땅을 떠나지 않을 터이니, 요셉을 알지 못하는 바로가 나타나 이들을 핍박한 것이죠.

이 핍박의 시간들이 쉽지 않았습니니다.

지난주에 모세가 태어날 때의 이야기를 잠깐 살펴보았지만, 모세가 태어나기 전부터 바로는 모든 히브리민족의 아들들을 죽이라고 명령했으니 출애굽까지는 적어도 80년 이상의 세월이 흘렀을 것입니다.

우리가 한 가지 의문이 드는 것 중에 하나는, 모든 히브리 남자 아이들을 죽이라고 했는데 출애굽 당시 그 많은 남자들은 어디에서 나온 것인지 궁금하죠.

아마도 제 생각인데, 모세 당시 극심하게 핍박을 했을지라도 계속해서 모든 남자를 죽이는 정책을 쓰기는 힘들었을 것입니다. 당시 남자들은 ‘노동력’을 의미했으니 말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렇게 어려운 고난의 시절을 지나는 8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기도를 했을까요?

아마도 요셉을 알지 못하고 자신들을 핍박하는 바로가 죽기를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하지만 그렇게 그들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습니니다.

지금 히브리민족이 애굽에서 고난을 받는 이유는, 그들이 이방 땅에서 이방신을 섬기는 우상 숭배자가 되어 버렸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민족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 못했기 때문이죠.

사실 그들에게 필요한 기도는 빨리 정신을 차리고 회개하는 것이었을 것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해서 진짜 광야로 들어섭니다.

그 순간부터 이들의 가장 간절한 기도는 광야를 벗어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았습니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니 말입니다.

회개하지 않으면서 광야를 벗어나게 해달라는 그들의 기도가 어떻게 응답될 수 있을까요?

진짜 광야에서 우리가 해야 하는 기도는. . .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자신들이 원하는 기도예 대하여 응답이 없자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애굽에서도 살려달라고 기도하는 히브리인들의 기도예 대하여 하나님의 방법으로 응답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방식은 ‘출애굽’이었죠.

광야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서 있는 장소였습니다. 그러나 그 광야에서도 이스라엘 백성은 계속해서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가만히 보면, 먹을 것이 없어서 불평한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먹고싶은 것을 먹지 못해 불평을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만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애굽에 있을 때 먹었던 고기를 생각하며 불평과 원망가운데 하나님께 바라는 것을 쏟아 놓기 시작했습니다.

민수기 11장 33-34절은 우리가 날 아는 사건이 나옵니다.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 씹히기도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대하여 진노하사 심히 큰 재앙으로 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기브릇 핫다아라라 불렀으니 욕심을 낸 백성을 거기 장사함이었더라.

그들이 바랐던 메추라기를 먹은 곳이 ‘탐욕의 무덤’이 되었습니다.

그들이 광야에서 죽은 것은 먹을 양식이 없거나, 물이 없어서가 아니라 탐욕으로 인해 죽은 것입니다.

‘진짜 광야’에서 우리는 신앙을 점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바라는 것이 옳은 것인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가장 진지하게 바라보는 장소입니다.

신명기 8장 3절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기억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다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주리게 하시며

하나님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철저하게 내려놓는 훈련을 하게 하셨습니다.

무엇보다 광야를 지나는 동안 인간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간다는 것을 배우게 하셨습니다.

매일 내리는 만나는 '그날의 양식'만을 거두게 되어 있었습니다. 인간들이 아무리 욕심을 내어 모아도 다음날 다 썩어버리니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는 것들을 모임이 얼마나 허망한 것임을 깨닫게 하신 것이죠.

건강하게 나무가 자라는 원리는 아시나요?

지나치게 무성한 가지는 뿌리가 감당하지 못합니다. 참 신기하게도 나무는 무리가 되는 가지를 스스로 고사시키며 다른 가지들을 살립니다. 스스로 말라지게 하는 가지를 보면서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는 버려야 할 것을 과감하게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들이 영원한 생명을 얻는데 가장 큰 장애가 되는 것이 바로 탐욕입니다.

광야는 인간의 탐욕을 버리는 가장 좋은 훈련의 장입니다.

진짜 광야에서 이스라엘은 자신들이 따라가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배우게 됩니다.

광야에서 양을 치는 베드윈들이 앞서 걸어갈 때, 뒤 따르는 사람들이 종종 묻습니다.

“어디가 길입니까?”

베드윈들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곧 길입니다. 나를 따라오시기만 하면 됩니다.”

어디서 많이 듣던 말과 유사합니다.

40년 광야생활 가운데 하나님은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이스라엘을 인도하셨습니다.

지난 시간에 언급했던 것처럼 모세는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살았습니다. 모든 길을 다 알고 있었고, 모세가 아는 길로만 갔다면 40일 정도면 가나안에 다다를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세의 지도로 그 길을 간 것이 아니라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이스라엘을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40년 이란 시간이 걸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이스라엘을 인도하신 이유를 생각해 볼까요?

-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보면서 따라가면 이들은 절대로 길을 잃지 않을 것입니다.
- 구름기둥은 한 낮에 그리고 불기둥은 한 밤에 이스라엘을 지키는 안전판이 되었습니다.
- 구름기둥과 불기둥은 이스라엘이 가고 싶은 대로 가지 않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곳으로 가도록 했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광야를 지날 때,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의미하는 것이 있습니다.

광야를 지날 때, 하나님이 움직이면 우리도 움직이고 하나님이 멈추시면 우리도 멈추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때로 빨리 갈 때 우리도 속도를 내야하고, 천천히 움직일 때는 우리는 속도

를 줄여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과 동행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우리 인생의 진짜 광야에서 우리는 보다 선명하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제 사건을 조금 앞으로 되돌려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널 때 참 흥미로운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홍해가 갈라진 기적에 주목하고 그 홍해를 건넌 기억이 이스라엘의 신앙에 얼마나 중요한지를 생각합니다.

그런데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간과하기 쉽습니다.

홍해 앞에 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은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원망을 쏟아내고 있었습니다. 홍해 앞에서 죽게된 자신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바라볼 만한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홍해를 갈라 주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모세도 하나님께 홍해를 갈라달라고 기도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9절을 보겠습니다.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그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믿음으로 홍해가 갈라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르신 홍해를 그들이 믿음으로 건넜다는 것입니다.

광야를 지나는 동안 일어난 일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해서 일어난 일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에 대하여 믿음으로 받아들일 것이냐 아니냐가 문제가 되었던 것입니다.

진짜 광야에서 우리가 드리는 기도는 방향조차 알 수 없을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가고 있는 방향조차 가는하기 힘들고, 한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상황이니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은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보이시고 인도하시는 광야에서 믿음을 발을 내 딛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이 분명하다면 말입니다.

진짜 광야에서 우리가 보아야 하는 것들.

신명기 8장 4절을 보겠습니다.

4. 이 사십 년 동안에 네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네 발이 부르츠지 아니하였느니라

광야에서 우리가 진짜 보아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홍해는 40년 동안 수없이 반복된 일이 아니라, 단 한 번의 기적의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매일 반복되는 이슬비 같은 은혜가 있었습니다.

문제는 매일 반복되는 은혜를 우리가 어느 순간부터인가 은혜로 느끼지 못한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욕망이 채워지지 않아 얼마나 많은 불만과 원망이 있었나요?

매일 매일 하루 하루 살아가는 것이 죽음의 위협가운데서 처절하게 싸웠다고 생각했는데,

너희의 의복을 보아라!

너희의 발을 보아라!

사실은 은혜로 생각하지 못했던 매일 매일의 보호하심을 통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습니다.

홍해를 한 번에 가르는 기적보다 더 귀하고 세심하게 매일 매일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셨습니다.

심한 박해를 지냈던 초대교인들의 교회나 카타콤에 보면 ‘양과 목자’에 대한 그림들이 많습니다. 무엇보다 우리에게 익숙한 그림이죠. 목자가 양을 어깨에 메고 있는 모습입니다.

의복과 신발을 보니, 광야의 메마른 길을 갈 때,

황량한 벌판에서 원수와 맹수의 공격을 만날 때, 우리 하나님은 이들을 철저히 보호하여 주셨습니다. 푹푹 빠지는 모래사막을 걸을 때에도 하나님은 이들을 안고 그 곳을 지나가셨습니다.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신앙을 고백해야 했던 것처럼, 우리 인생의 광야에서 우리가 보아야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많이 들어 보셨겠지만, 애굽에서부터 가나안으로 가는 길을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

당시 장사하는 사람들이 다녔던 길이기도 하고, 아브라함과 이삭이 가뭄을 만나 애굽에 들어갔던 길이죠. 유다 고지와 왕의 대로를 따라 걷다가, 지중해 해변을 따라 걸어간다면 1주일에도 갈 수 있는 길이죠.

두 번째 길은,

하나님께서 처음에 계획해 놓으신 길입니다.

애굽에서 나와 홍해를 건너 광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가데스 바네아’를 지나 가나안 땅으로 바로 들어가는 코스였습니다. 여기까지 딱 2년이면 충분합니다.

세 번째 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온 광야의 여정입니다. 애굽에서 홍해를 건너 가데스 바네아에서 다시 광야로 나가 38년을 헤매다 가나안으로 들어갔던 40년의 여정입니다.

분명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2년의 여정이 열려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니, 누군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하고 간다면 2년의 여정으로 '광야의 인생'을 마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길을 '가데스바네아'에서 틀으셨습니다.

민수기 14장 25절,

광야로 들어갈지니라

이들이 광야에 들어간 것은 본래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불신앙으로 인해 하나님께서 길을 바꾸신 것이죠.

민수기 14장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시려고 했던 가나안을 정탐하게 하셨던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실 '정탐'이라기보다는 '확증'과 '시인'의 기회 였던 것이죠.

그러나 이들은 지난 2년 동안 가데스바네아에 오기까지 역사하셨던 하나님을 아직 신뢰하지 못하고 원망했습니다. 민수기 14장 11절에서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행위를 이렇게 질책하셨습니다.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 . 어느 때 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이진희 목사가 쓴 [광야에 살다]에 보면 이 부분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가나안으로 올라가라 하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은 No 했다. 그래서 하나님이 노(怒)하셨다. 광야로 돌아가게 하셨다. 그제야 정신을 차린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으로 올라가겠다고 했다. 그러자 이번에는 하나님이 No하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으로 올라갔다. 그러나 대패하고 말았다. 하나님이 노하셨던 것이다.
하나님이 No 하시면, 그리고 하나님을 노하시게 하면 우리가 아무리 애쓰고 노력해도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다.

우리의 인생에서 '찐 광야'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왜 광야에 있는 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광야에서 우리가 살아왔던 과거와 현재 미래를 하나님 앞에서 보아야 합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훈련의 시간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시는 시간들을 통해 하나님을 기뻐하는 고백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민수기 14장에서 12명의 정탐꾼 중 유일하게 가나안을 밟았던 두 사람의 고백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오랜만에 후안 까를로스 오르띠즈 목사님의 [제자입니까]라는 책을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잃어버렸던 것을 다시 생각나게 하는 구절이 있었습니다.

‘제 5복음’을 믿는 크리스천들이라는 부분이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보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덧붙여서 자신들이 믿고 싶은 곳만 모아서 ‘제 5복음’서를 만들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주’라고 고백한다면 그분에게 온전히 순종하고 따라야 하는데,

우리는 늘 하나님이 우리를 따라주고, 우리의 말을 들어주고,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면’이 아니라,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이 해 주시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진 광야에서’ 우리는 심각하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실까?

좋은 주인이 기뻐하는 일을 합니다. 주인이 종의 기분을 맞추려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는 일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될 때, ‘찢광야’를 비로소 벗어나게 될 것입니다.

곤고한 날에는 기도하고 즐거운 날에는 찬송하십시오!

광야에서 우리는 진심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살피야 합니다.

광야가 우리에게 의미있는 것은 지나가야 하는 곳ियो, 벗어날 수 있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광야로 몰아가시지만, 그 곳에서 오래 머물기를 원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그 광야를 벗어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기에,

광야에 있는 우리의 모습이 하루속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